

월간

공군



제559호 01

- 0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 18 **공군 부대 탐방**
제10전투비행단



- 12 **개편 안내**
2025년 월간 『공군』 개편사항 안내

- 22 **내 옆의 공군인**
공군 홍보의 최전선에 서다,
대위 김용휘

- 14 **신년 특집 I**
뱀띠 장병들의 새해 다짐

- 26 **이달의 공군史**
‘대한민국 공군’의 등장을 알리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 16 **신년 특집II**
2025년 달라지는 주요 공군 정책

- 28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공군의 기원: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

표 지(앞) 새해 일출을 배경으로 초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편대(일러스트레이터 반)
표 지(뒤)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비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행일자 2025년 1월 1일(통권 제559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집감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획·편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자도서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120549)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32

Aero Detail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



44

소리로 보는 세상

오백 년을 이어온 소리, 종묘제례악

46

서양 문화 비행

선사 시대의 예술, 기원과 주술적 의미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동굴벽화

48

생각하는 그림

초킹(Chocking) 극복하기

36

전적지에서 바라본 전쟁 이야기

벨기에 이프러(Ypres) 격전지

50

책 읽는 공군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 군수와 상병 김민철)

40

한 달, 한 권

나의 관점을 바꿔준 책,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42

세계 식문화 기행

비빔밥 이야기



월간

공군



크리스마스 공수 작전

대한민국 공군은 12월 3일(화)~17일(화), 괌에 위치한 美 앤더슨 공군기지 및 미크로네시아 지역 일대에서 인도적 지원과 해외 임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크리스마스 공수 작전에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공수 작전은 美 공군이 1952년부터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들에게 식량 등 물자를 공수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이번 공수 작전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총 5개국 이 참여했으며 우리 공군은 C-130H 수송기를 포함해 30명의 임무 요원을 파견했다.



공수 물품 상자를 꾸미고 있는 韓 공군 요원과 美 공군 요원 자녀



공수 물품 탑재



300ft 상공에서 공수 물품 투하

항공작전 지속을 위한 제설 작전 실시

대한민국 공군은 11월 27일(수)~28일(목), 수도권·중부지역에 내린 폭설에도 변함없는 항공작전태세 유지를 위한 제설 작전을 실시했다. 이른 폭설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은 제설 장비인 SE-88을 이용하여 작전필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제설을 해내며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주요 시설을 제설 중인 SE-88



폭설에도 빈틈없는 기지경계를 수행 중인 공군 작전요원



스페인 군사외교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1일(일)부터 4일(수)까지 스페인을 공식 방문하여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참모총장은 프란시스코 브라코 스페인 항공우주군 총장, 프란시스코 아미엔 공중전투사령관, 아이작 크레스포 우주작전센터장, 미겔 이브라 국방부 물자총국장 등 스페인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의 공군 및 국방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투기와 수송기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토레혼 기지를 방문해 스페인 항공우주군의 항공작전 운영현황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NATO연합항공작전센터를 방문해 후안 산체스 NATO연합항공작전센터장과 대담하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참가 방안 등 대한민국 공군과 NATO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24년 업무분석 및 '25년 업무계획회의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13일(금) 공군 본부 대회의실에서 '24년 업무분석 및 '25년 업무계획회의를 주관했다. 회의를 통해 참모총장은 올 한 해 실시업무를 분석하고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더불어, 2025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점검하며 업무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또한, 부·실·단장들에게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과 위기 극복 사례를 담은 도서 『세종의 적술력』을 선물하며, 지위에 걸맞은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공군 발전과 올바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렴 대면 교육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12일(목) 공군 본부 김정렬장군실에서 진행된 '24년 청렴교육에 참석했다. 공군본부 감찰실 문재명 서기관(청렴전문강사)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와 공군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갑질' 근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공군은 매월 각급 부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2024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

공군사관학교는 12월 5일(목), '미래 과학기술 변화와 항공우주 주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사와 KAIST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사관생도, 대학생, 대학원생 등 27개팀이 발표에 참가했으며 발표팀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 대회 참가자들은 공사 천문대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시설과 '항공우주 기술 전시특별관'의 항공우주 첨단장비를 견학하며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군교육사령부

제153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는 11월 27일(수), 부대 내 대연병장에서 205명의 신임장교를 대상으로 제153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지난 8월 26일(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며 정예장교로 거듭났다. 특히,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삼남매가 공군 간부로 근무하게 된 김선희 소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김유안 소위 등 신임장교들의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공중전투사령부

2024년 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

대한민국 공군은 11월 25일(월)~29일(금), 대한민국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K)F-16, FA-50, F-5와 같은 다양한 전투기를 포함하여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190여 명의 작전요원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난 6월 창설된 우주작전전대가 참여하여 국가정찰위성을 활용한 긴급 표적처리 절차를 숙달하는 등 작전 수행 역량 전반을 증진했다.



제1전투비행단

'24-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제1전투비행단은 12월 12일(목), 신임 조종사 36명을 대상으로 '24-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료한 신임 조종사들은 '입문-기본-고등'으로 이어지는 약 1년 8개월간의 강도 높은 비행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당당히 목에 걸었다. 신임 조종사들은 각자 부여 받은 기종에 따라 전투기 입문과정(Lead-In Fighter Training, LIFT) 또는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ombat Readness Training, CRT)을 거쳐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제16전투비행단

군·관 합동 유류누출 확산방지 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12월 3일(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 환경본부, 예천군청, 예천경찰서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군·관 합동 유류누출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0월 28일(월) 체결한 예천지역 수질오염 합의를 바탕으로 최초 실시되었다. 훈련은 기름이 하천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훈련에 참여한 16전비 유류관리중대 요원들은 수질오염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제39비행단

한미 항공구조사 연합 지상훈련

제39비행단은 12월 9일(월)~13일(금),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24-7차 쌍매훈련(Buddy Wing)'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한민국의 KF-16과 미국의 F-16 등의 전투기가 투입되었다. 한미 연합공군은 중원기지에 전개하여 방어제공(DCA, Defensive Counter Air),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d Air Support, CAS), 연합 실무장 폭격 등 연합항공작전을 수행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2025년



월간 『공군』 개편사항 안내

2025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을 맞이해 월간 『공군』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단장한 월간 『공군』, 새해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국립 공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군의 역사가 담긴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해주던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공군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 11월, 총 5회 연재)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는 세계 곳곳의 항공우주박물관을 답사하며 각국의 항공우주력 발전 역사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항공우주력 발전의 역사가 숨 쉬는 생생한 현장을 전해준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획 연재로 개편하여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 12월, 총 12회 연재)

「동서양 그랜드 투어」

국악, 클래식, 동양화, 서양화 등을 다루며 구독자 여러분의 교양 증진을 책임져온 「동서양 그랜드 투어」가 2024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층 더 내실있는 교양 코너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 12월, 총 12회 연재)

「영화로운 나날」

이미 봤던 영화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화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준 「영화로운 나날」은 마무리되었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영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 12월, 총 12회 연재)

New 코너 인사드립니다!

「지도 들고 떠나는 공군사」

‘이곳에 공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대한민국 곳곳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은 격월(짝수달)로 공군 역사의 전문가들과 지도를 들고 우리나라 곳곳에 감춰진 공군 역사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할 예정입니다.

「전적지에서 바라본 전쟁 이야기」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월간 『공군』 구독자들과 함께해온 신종태 교수님이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적지를 답사하며 그곳에 얽힌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이야기는 이번 호 36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리로 보는 세상」

음악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전하는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락부터 클래식까지! 세계 곳곳의 소리에 담긴 삶과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묘 재례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44p에서 만나 보세요.

「서양 문화 비행」

2024년 「동서양 그랜드투어」를 통해 서양의 명화를 소개해 주었던 소나영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이 이번엔 ‘서양 문화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시대순으로 서양 문화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번 호 46p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4 월간 『공군』 구독자 대상 설문 조사

설문기간 : ~2025. 01. 31.(금)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
핸드크림, 다이어리 등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더 나은 월간 『공군』 제작을 위하여 독자 정보,
코너별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으로
응답은 약 4~5분 소요됩니다.



설문 조사 QR코드

뱀띠 장병들의 새해 다짐



제16전투비행단 원사 송성의(1977년생)

필승! 저는 자랑스러운 자주국방의 상징인 FA-50 항공기 정비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영공수호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송성의 원사입니다. 2025년 푸른 뱀띠해가 도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항공기가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이 푸르고 순수한 기운을 이어받아 조국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커다란 축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초지일관(初志一貫)! 자랑스러운 공군이자 책임감 있는 군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0전투비행단 소령 박빛(1989년생)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Fighting Falcon, One Team 20비”라는 비행단 구호처럼, 하나의 전투기가 이륙하여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팀이 되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륙하는 전투기를 보면서 ‘내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나의 역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는 데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7급 황은빛(1989년생)

안녕하세요? 제1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은빛 주무관입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모두에게 좋았던 기억 그리고 아쉬운 감정이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은 지나간 2024년과 함께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뱀처럼 2024년의 아쉬운 순간들에서 나와 행복한 일이 가득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길 모든 공군 가족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할 공군인들 중 ‘뱀띠’인 장병들은 이번 한 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남달라 것 같다. 2025년에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뱀띠’ 장병들이 월간 『공군』 편집실에 새해 다짐을 전해왔다.




제39비행단
하사 박진현(2001년생)

One Team! One Shot! 대한민국 영공의 불침번 제39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박진현 하사입니다. 저에게 지난 2024년은 임관 후 맞이한 첫 해였습니다. 초급간부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후회되고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과 기억도 많이 남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나면 흉터가 지고 새 살이 돌아나듯이 고통은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장하여 공군의 부사관으로서 조국 영공수호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2025년은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73기 사관생도 이세희(2001년생)

생도생활발전위원장 생도로서 4년의 생도생활을 마무리한 2024년은 미약하게나마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은 저와 동기생들이 ‘공군 소위’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한 해라는 점에서 제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뱀의 날카로운 눈빛과 같이 공군의 비전을 바라보고, 뱀처럼 유연하게 난관을 극복하며 허물을 벗어내고 성장하는 공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미사일방어여단
상병 하준수(2001년생)

필승!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기지대 하준수 상병입니다. 청사(靑蛇)의 해인 2025년, 저는 군 생활에서의 성장은 물론 개인적인 성장도 조화롭게 이루며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군사경찰 동료들과 협력을 통해 부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기지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에도 더욱 성숙한 군인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2025년 달라지는 주요 공군 정책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혁신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변화들이 쌓여 조직은 더 유연해지고 강해진다. 2025년을 맞아 공군의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변화한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 공군의 임무 현장과 장병들의 삶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럼 2025년, 공군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병 내일준비적금 월 납입금 인상

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목돈 마련 제도이다. 복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불입하면, 정부의 비과세 재정지원금과 금융기관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만기 시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월 최대 납입금이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산정했을 때, 만기 시 최대 2,3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 내일준비적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더 큰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중기복무 간부들의 전직지원기간이 확대되고 단기복무 간부들의 구직청원휴가 제도가 신설되는 등 군 복무 이후 장병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쟁법 시 도입 및 운용

전쟁법은 전쟁 중에도 준수해야 할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의미하며 전쟁의 잔혹함을 줄이고 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5년 '공군 GPT(전쟁법 시)'를 도입하여 군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일반 장병들이 쉽게 전쟁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쟁법 기본법규집』 등 관련 문헌과 주요 국제법을 학습한 전쟁법 시를 통해 공군 장병들은 대화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쟁법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전시 전쟁법 관련 검토가 필요한 순간에도 유용한 조언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부 선발제도 개선

대한민국 공군은 올해도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간부 선발 시 응시해야 하는 필기시험 인증제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역병 중 부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부대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다. 조종분야 장교 선발에서 조종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대면 면접 분과를 축소시킬 예정이며, 일반학군 장교 선발에서도 기존 대면으로 실시되었던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한편, 공군은 간부 선발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군을 위해 장기적으로 활약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장기 복무자 선발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 모두 기존보다 1년 앞당겨 장기복무자를 선발하여 초급간부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 기존 | 변경 |
|---------------|--------------------|-----------------------|
| 필기시험 인증제 유효기간 | 1년 | 2년 |
| 조종분야 장교 선발 | 조종사적성검사 및 대면 면접 실시 | 조종사적성검사 폐지 및 대면 면접 축소 |
| 일반학군 장교 선발 | 대면 신체검사 | 서면 대체 |
| 장기복무자 선발(장교) | 임관 4~5년 차 | 임관 3~4년 차 |
| 장기복무자 선발(부사관) | 임관 5~6년 차 | 임관 4~5년 차 |




야간 근무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확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밤에도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많은 공군 장병들이 존재한다. 야간 근무로 인해 뒤바뀐 시간대 속에서 근무하는 공군 장병들에게는 일반 근무자들과는 다른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 공군은 2025년부터 비행단 작전·전투요원 등 특정 부대, 일부 직위에만 해당되었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공군 전 부대, 야간 근무 직위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부터는 고정적으로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의료정보체계 개인 인터넷·모바일로도 이용가능

군 내부망인 인트라넷 체계 기반으로 운영 중인 국방의료정보체계가 올해부터는 인터넷·모바일 환경과 연동한 新 국방의료정보체계로 개선될 예정이다. 국방의료정보체계는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대·내외 기관과의 양방향 연동체계 구축으로 사용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국방의료정보체계의 개선으로 장병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전 진료 예약 및 외래진료 접수, 검사결과 조회 및 관리, 의무기록 발급, 개인 맞춤형 질환 예측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군 부대 탐방



제10전투비행단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투, 감시, 정찰, 대공방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여러 부대를 탐방하며 부대의 역사와 임무 그리고 비전을 전하는 기획 연재를 준비했다. 이번 호에서는 수도권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이다.



평양 대폭격 작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기록화

제10전투비행단의 역사

10전비는 ‘조국수호의 최선봉 제10전투비행단’, ‘ACE TEN, HAPPY TE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6·25전쟁부터 지금까지 전투비행단의 임무를 수행한 최일선 비행단이다. 6·25전쟁 기간 10전비는 공군의 3대 전과인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351고지 지원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수원기지에서 70년간 대한민국 수도권과 서북도서 영공을 방위하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951년 8월 1일, 제10전투비행전대가 사천기지에서 창설된 후 같은 해 9월 강릉기지로 이동, 6·25전쟁에 참전하여 10월 11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공군의 첫 단독출격을 실시했다. 6·25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3년 2월, 제10전투비행단으로 승격되어 1954년 11월 강릉에서 현재의 수원기지로 이전하였다. 1955년 공군 최초로 제트전투기 F-86F를 운용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F-5 전투기를 도입하여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한 최정예 부대로 발돋움했다. 1967년 서해 침투 간첩선 격침을 비롯해 10회에 걸친 대간첩작전과 이웅평 대위



대한민국 공군 최초 단독출격 개시



10전비 승격



F-86F 전투기 인수식



북한 이용평 대위 귀순

귀순 등 3회의 귀순 항공기 유도작전을 완벽히 수행하여 공군 최정예 비행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10전비는 F-4E 팬텀II를 운용한 마지막 공군 부대이다. 10전비에서 2024년 6월, F-4E 팬텀II의 마지막 출격과 퇴역식이 거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마지막 팬텀 비행대대인 제153전투비행대대가 해편되면서 55년간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한 '하늘의 도깨비' 팬텀은 10전비에서 그 마지막 임무를 뜻깊게 마무리했다.

또한, 10전비에는 70여 년 동안 비행단 소속으로 6·25전쟁, 작전 및 훈련 중 순직한 분들을 위해 조성된 충의공원이 있다. 충의공원에는 '명예'라는 꽃말을 가진 주목이 순직자의 숫자에 맞추어 심어져 있다. 충의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아 2012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다.



F-4 팬텀 퇴역식



충의공원

수원기지에서 탄생한 비행대대 (창설연도순)



101전투비행대대
[1953.02.15. 개편]
F-51D → F-86F → F-5E/F



102전투비행대대
[1953.02.15. 개편]
F-51D → F-5A/B → F-15K



103전투비행대대
[1953.05.17. 창설]
F-51D → F-86F
→ F-5E/F → FA-50



108요격전투비행대대
[1960.04.15. 창설]
F-86D



109요격전투비행대대
[1961.07.01. 창설]
F-86D



105전투비행대대
[1964.10.15. 창설]
F-5A/B → F-5E/F



110전투비행대대
[1966.05.01. 창설]
F-5A/B → F-4D → F-15K



120전투비행대대
[1969.03.01. 창설]
F-5A/B → F-16



189요격전투비행대대(108/109)
[1969.04.20. 창설]
F-86F → T-33A → F-5B
→ F-5F → T-38A → T-50



121전투비행대대
[1972.03.01. 창설]
F-86F → F-16



122전투비행대대
[1974.11.10. 창설]
F-5A/B → F-15K



201전투비행대대
[1976.03.15. 창설]
F-5E/F



203전투비행대대
[1977.06.01. 창설]
F-5E/F → FA-50



207전투비행대대
[1979.05.01. 창설]
F-5E/F



131전술정찰비행대대
[1989.11.01. 창설]
RF-4C → RF-16/RQ-4B

수원기지를 거치간 비행대대



32전술정찰비행대대
[1958.03.01. ~
1989.11.01. 주둔 기간]
RF-86 → RF-5E/F



156전투비행대대
[1991.09.05. ~
2001.04.01. 주둔]
F-4E



153전투비행대대
[2017.09.25. ~
2024.08.30. 주둔]
F-4E

10전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부대인 만큼 다수의 비행대대를 탄생시킨 ‘비행대대의 어머니’이다. 수원기지는 총 15개의 비행대대가 탄생하고, 3개의 비행대대가 주둔했던 다기종 항공기 운용기지였으며, 이 비행대대들은 지금도 각 비행단에 흩어져 다양한 항공기들을 운용하며 조국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0전투비행단의 주요 임무

현재 10전비는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 임무와 유사시 적 장사정포 및 전술표적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0전비는 신속한 출격이 가능하고 우수한 기동능력을 보유한 KF-5 제공호를 운영하며 갑작스러운 적 도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0전비가 운용하는 KF-5 제공호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면허 생산한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 발전사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이다. 10전비는 이러한 주요 전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강도 높고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 조종사들의 기량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전비의 조직은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항공작전전대, 조종사의 안전과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항공정비전대, 밤낮으로 기지를 철통같이 경계

하며 항공작전운영 지속을 보장하는 기지방호전대,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든든한 후방지원을 하는 작전지원 전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비행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10전비는 ‘국민과 통하는 선진 공군상’

구현을 위해 Space Challenge 등 기지개방행사는 물론 부대 인근 의료봉사 및 위문활동 등 각종 대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출격하는 KF-5 제공호



美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한 KF-5 제공호



무장 장착 중인 정비요원



야간기지방호 훈련




Space Challenge



대민의료지원

제10전투비행단의 미래

최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따라 10전비는 최선봉 비행단으로서 적이 위협하면 즉각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2025년 강릉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하는 제105비행대대의 (KF)-5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하여 유사시 가장 신속히 출격하는 비행단으로서의 진용을 구축할 것이다. 10전비는 최일선 비행단으로서 적의 다양한 국지도발과 위협을 대비하여 분기마다 실전적인

전투태세훈련을 통해 위기조치 능력과 항공작전 지속력을 점검할 것이며, 장병 개개인의 행동절차 교육을 통해 기지생존능력 또한 향상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10전비는 조국수호 최선봉 비행단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주력하고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다. 

내 옆의 공군인

제60화
공군 홍보의
최전선에 서다,
대위 김용휘



안녕하십니까?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소셜미디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휘 대위입니다. 소셜미디어담당은 공군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해당 채널들에 업로드되는 각종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공군에 단 하나뿐인 소셜미디어담당은 온라인상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대한민국 공군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힐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는 김용휘 대위

소셜미디어담당을 어떻게 담당하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소셜미디어담당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그 전 보직이 월간 『공군』을 만드는 공군지담당이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터뷰를 하고 계신 편집자분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무튼, 공군지담당으로 있을 때, 소셜미디어담당인 옆자리 선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군지담당을 1년 하고 소셜미디어담당에 지원하여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을까요?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두 가지는 바로 ‘재미’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노잼’ 콘텐츠를 보시나요? 안 보실 겁니다. 무언가를 홍보하고 싶어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단지 웃긴 것만 말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웃긴 것, 슬픈 것, 감동적인 것, 스틸 있는 것, 어이없는 것... 다 재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군’이라는 국가기관이고, 의미를 담지 않으면 유머 채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라는 게 결국 ‘의미’가 있어야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콘텐츠 중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성공적인 홍보가 ‘故프로의 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F-15K가 ‘타우러스’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하는 날, 저희는 타깃 한 가운데에 고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새로운 각도의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故프로의 회상’은 이 고프로를 의인화하면서 ‘히로시의 회상’이라는 짱구 극장판의 유명한 장면을 오마주하자는 영상기획담당의 의견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입니다. 어마무시한 타우러스의 위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의미’있는 홍보임과 동시에 ‘재미’까지 챙긴 기발한 홍보였다고 자평합니다.

타군도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군만이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각 군별로 인원이나 예산 등 업무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육군의 콘텐츠는 블록버스터 같습니다. 퀄리티, 스케일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느낍니다. 해군은 높은 퀄리티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UDT 등 특수부대나 해군 출신 유명인들을 섭외해서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역시도 정제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공군이 이들 중 제일 이상합니다. 밤양갱, 알라트... 그리고 갑자기 팬텀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상하다는 점이 공군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공군의 콘텐츠는 국가기관, 특히 군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딱딱할 것 같다는 이미지의 대척점을 보여줍니다. 10년 전 '레밀리터리블'이 그랬고 최근에도 위에서 열거한 콘텐츠들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밤(BOMB)양갱 썸네일



ALT 썸네일

홍보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얼핏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업무가 단지 재미있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군에서의 홍보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조직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정보를 지키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군 조직 특성상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온라인상의 밈(Meme)과 트렌드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이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

시기 때문에 공군의 콘텐츠를 더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동원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다면 홍보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본연의 임무가 있지만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많은 공군 장병과 군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원들과 콘텐츠 기획 회의 중인 김용휘 대위



팬텀을 찾아서 中 수송기에 탑승하여 겁이 난 표정을 연기하고 있는 김용휘 대위

구독자/팔로워들과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로 영상의 댓글을 보며 대댓글도 남기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군 공식 계정으로 글을 남기다 보니 많이들 재미있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가끔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전투기 보여주세요’ 등 다양한 요청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며 저희 팀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을 일일이 다 확인해보는 편인데, 대체로 다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밤(BOMB)양갱’에 달린 글이었는데, 공군 부대 근처에 사시는 분이 처음에는 전투기 소리가 싫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공군의 노고를 깨닫고 무탈하게 훈련이 끝나기를 바라신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혹시 ‘팬텀을 찾아서’에 나온 성격이 실제 성격인가요?

‘팬텀을 찾아서’에 나온 김용휘 대위는 제가 아닙니다. 극 중 ‘김용휘 대위’라는 인물이었을 뿐이고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헛갈리신다면 제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저는 실제 굉장히 낮을 많이 가리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공군 채널 구독자와 월간 『공군』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세상의 많은 재미있는 채널들 사이에서 우리 공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국민에게 보고 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당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를 끝으로 다른 보직으로 떠나게 됩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제 군 생활, 더 나아가 제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이달의 공군史

‘대한민국 공군’의 등장을 알리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1952. 1. 12. ~ 15.)

평양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지점에는 ‘승호(勝湖)’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국가지식포털에서 제공하는 「북한지역 정보넷」에 의하면, 이 지역의 명칭은 대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는 절승(絶勝)*을 이룬 여울목이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호’라는 지명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 전승(戰勝) 중 하나인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1952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은 평양 대포격 작전, 351고지 항공지원작전과 함께 우리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6·25전쟁 당시 승호리 일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평양에 집적된 전쟁물자와 병력을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적(敵) 후방 보급의 요충지였다. 앞서 밝힌 ‘승호’라는 지명의 유래처럼 이곳은 남강의 여울목이 지나는 위치였기 때문에, 적은 이곳에 철교를 부설해 보급로를 이어야만 했다. 따라서 아군은 승호리 철교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해 폭격 작전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철로가 놓여 있던 기존 철교는 美 공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적은 기존 철교의 위치에서 하류 방향으로 우회하여 새 철교를 가설하였다. 6·25전쟁 개전 직후부터 아 공군의 공중폭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철교 주위에 정교하고 밀집된 대공방어망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파괴된 철로와 교량을 빠르게 복구하는 공병술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새로 부설된 승호리 철교는 이러한 노력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美 5공군은 이곳을 파괴하기 위해 500소터(sortie) 이상의 출격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철교 차단에 실패했다. 2022년 우리 공군이 공개한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당시의 항공사진은 적

후방 군수품 보급로의 요충지로서 승호리 지역의 중요성과 인근의 험난한 지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승호리 철교 차단에 실패한 美 공군은 이제 막 단독출격을 개시한 우리 공군에 기대를 걸었다. 당시는 대한민국 공군이 1951년 10월 11일 첫 단독출격을 시작한 이후 3개월이 갓 지난 시점이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제10전투비행전대장 김신 대령(이 글의 모든 계급은 사건 당시 계급임)은 자신이 직접 승호리 철교 상공을 시찰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당시의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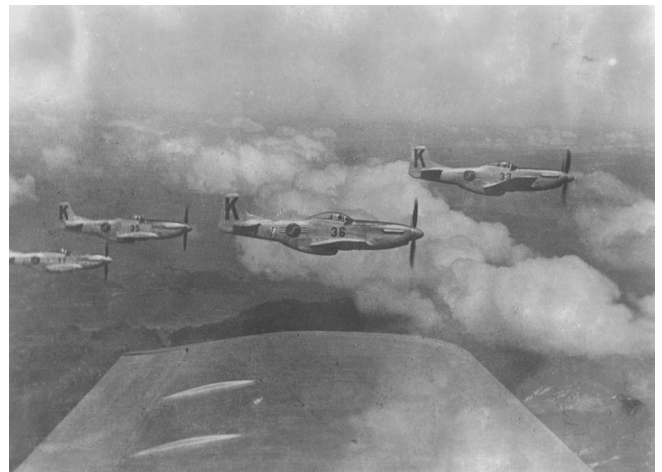
* 절승(絶勝): 경치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게 좋음. 또는 그 경치.

“나도 한 번 이 철교 부근에 들어가 봤는데, 공중에서 고사포탄이 무수히 터졌다. 적의 고사포가 이 철교를 끊지 못하게 한 주원인이었다. 그래서 美 공군이 결국 우리에게 승호리 철교 폭파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군도 명예가 있으니 미군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해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를 걸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한번 해 보자’고 부하들을 격려했다. 결국 우리 조종사들이 승호리 철교 폭파에 성공했다.”

김신 대령은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어려움으로 ‘고사포탄’을 지목했다. 승호리 철교 일대에 정교하게 구축된 방공망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1월 12일 철교 차단을 위해 첫 출격하는 우리 공군 F-51D 편대(1차: 편대장 김두만 소령, 2번기 장성태 대위, 3번기 김금성 대위, 4번기 이기협 대위, 5번기 전봉희 대위 / 2차: 편대장 윤응렬 대위, 2번기 주영복 대위, 3번기 정주량 대위)는 폭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야 했다.

첫째 날 출격의 디브리핑에서 적의 고사포 외에도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전술적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기존의 美 공군 교리에 따라 폭격은 8,000ft(약 2.4km) 상공에서 강하하여 3,000ft(약 914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승호리의 경우 해당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다. 이에 우리 공군은 이른바 ‘초저공침투’ 전술을 고안했고, 4,000ft(약 1.2km) 상공에서 강하하여 1,500ft(약 457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모험을 강행했다. 고사포가 빗발치는 적의 방공망을 감안할 때, 낮은 고도로 침투하여 폭탄을 투하하는 초저공침투 공격법은 높아진 폭격의 정확성만큼이나 조종사의 피탄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전술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개의 편대로 구성된 우리 공군 편대(제1편대장 윤응렬 대위, 2번기 정주량 대위, 3번기 장성태 대위 / 제2편대장 옥만호 대위, 2번기 옥만호 대위, 3번기 박대호 대위)는 1952년 1월 15일 오전 성공적으로 승호리 철교의 파괴에 성공했고, 이에 더해 인근의 포진지 6개소와 보급품 집적소 1개소, 병커 3개소 및 건물 1개 동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단독 출격을 실시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공군이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였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 공군에 대한 위상 또한 높아졌다. 작전에 참가했던 윤응렬 장군의 회고 중 당시 美 공군의 몇몇 이들은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을 우리 공군에게 이양하며 이 작전의 성패(成敗)를 두고 내기를 걸었고, 우리 공군이 작전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 공군에 돈을 건 미국 사람이 돈을 대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한 에피소드 형태의 회고지만,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을 통해 우리 공군을 반신반의하던 美 공군이 우리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던 대한민국 공군에게, 항공작전의 성패는 곧 우리 공군의 역량을 알리는 시험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한 역량을 현시(顯示)해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작전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을 위해 출격하는 F-51D

역사 속 공군 이야기



공군의 기원: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

영화 『맘마미아』와 공군 창군사

영화 『맘마미아』는 결혼을 앞둔 소피가 엄마의 일기장에서 찾아낸 자신의 아빠로 추정되는 엄마의 전 연인 세 명을 결혼식에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그녀는 진짜 아빠를 찾기 위해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을 대면하자 오히려 혼란에 빠진다. 이 아름다운 영화는 결국 소피가 자신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엄마의 일기장을 실마리로 삼아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는 어느 젊음의 찬란한 분투기다. 소피처럼 공군사 연구자들도 공군의 기원을 찾기 위해 역사서를 살핀다. 그에 따르면 공군의 역사는 1949년 10월 1일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피 엄마의 일기장처럼, 역사서들은 그 이전의 역사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광복 이후 어떤 항공 부대가 어떻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역사서마다 조금씩 상이하여, 여전히 정립되지 못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빠를 마주친 소피처럼, 그 역사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금세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혼란은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각 군(軍)이 창군된 직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 문서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각종 역사일지와 일부 명령 정도만 남아있어 창군 시기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공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공군본부가 위치한 서울이 위협받자 인사담당자는 모든 인사 관

계 서류를 소각하고 장교와 사병(士兵)의 군번 일람표만을 지참하고 퇴각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후 특명철과 『공군일지』 등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전쟁 이후 작성된 역사서들에서 공군 창군 이전의 역사는 주요 인물들의 회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서술이 공존하게 되었다. 역사서들을 검토해 보면, 그 출발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1952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이오 육군전사(六.二五 陸軍戰史) 제1권』(이하 『육군전사』)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발전약사(空軍發展略史) 제1권』(이하 『공군발전약사』)이다. 이 두 책에서 제시하는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다소 상이하다. 그 이후에 출판된 역사서들은 모두 이 두 권의 해석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조선경비대(국방경비대)’는 육군의 모체(母體)이다. 1945년 11월 13일에 미군정이 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관으로 美 제24군단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5일에 군정청 국방사령부 군무국 관할하에 ‘남조선

이 글은 『군사(軍史)』 제125호에 게재된 논문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찰」을 바탕으로 논문을 재구성하면서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양적 성장을 거듭한 후 1947년 12월 17일부로 '조선경비대'로 개칭하였고, 1948년 9월 5일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육군'은 11월 30일에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의해 정식 법제화되었다.

조선경비대의 성장은 주로 보병부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 부대도 창설되고 성장하였다. 조선경비대 내에서 창설되고 성장한 항공 부대는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12월 1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서사가 병존한다. 우선 『육군전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고 김정렬(金貞烈)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창설 요원으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였고, 5월 5일에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육군항공부대'가 정식으로 "편성"되어 통위부에 편입되었으며, 백인엽(白仁燁)이 초대 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육군항공부대'는 7월 27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고 부대 병력을 강화하면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고, 9월 13일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예하에 비행부대와 기지부대를 창설하였다.

한편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은 최용덕(崔用德)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한 날짜였고, 5월 5일은 '항공기지부대'가 "편성"되어 통위부 예하로 "편입"된 날짜였다. 5월 15일에는 창설간부요원들이 항공소위로 임관하였고, 7월 9일에 최용덕이 부대장으로 보임하였다. 7월 12일에는 항공병 제1기 78명이 입대하였고, 7월 27일에는 '항공기지부대'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는 동시에 사령부를 수색에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다. 9월 13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최초로 연락기(L-4) 10대를 인수하여서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여의도)와 '항공기지부대'(김포)를 설치했고,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12월 15일부로 '육군항공군사령부'로 정식 개칭되었다. 대체로 『공군발전약사』의 설명이 『육군전사』보다 더 구체적이다.

이 두 서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최초

의 항공 부대는 언제 창설되었고, 그 명칭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을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셋째,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최초의 항공 부대는 언제 창설되었고, 그 명칭은 무엇이었는가?

『육군전사』에서는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라는 명칭으로 발족되고 5월 5일에 통위부 예하로 "편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이날 "편성"된 것은 '항공기지부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식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명칭은 1948년 5월 14일자 『통위부특명첩』에 표기된 '통위부 비행장부대'이다. 또한, 극동공군 정보장교 니콜스(Donald Nichols)는 이듬해 8월에 작성한 정보보고서에서 "Korean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군정에서 제시한 이 영문 명칭을 통위부에서 '비행장부대', 혹은 '항공기지부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5월 5일은 美 군사고문 앨러먼(William R. Allerman) 중위가 배치되면서 '항공기지부대'가 "구성(formed)"된 날이었다. 그 이후로 이 부대는 총 105명(장교 19명과 항공병 86명)으로 구성된 부대편성표(T/O)를 갖추고 병력을 충원한 후 7월에 부대 터로 할당받은 지역(김포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5월 5일에 편성된 '항공기지부대'는 정규 부대라기보다는 美 군사고문단과 함께 한국군 항공 부대의 창설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조직이었다. 역사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항공기지부대'는 7월 12일에 항공병 제1기 78명을 충원하고 사흘 후 지휘관을 임명한 후, 27일에는 김포로 이동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항공기지부대'는 7월 27일에 비로소 부대 창설에 필수적인 조치를 완료하고 정규 부대로 창설된 것으로 보이며, 그 부대 명칭은 『공군발전약사』의 내용과 김정렬의 회고 등에 따르면 '항공기지사령부'였다.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을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육군전사』에서는 백인엽이 1948년 5월 5일에 초대 부대장으로 보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공군발전약사』에서는 백인엽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고 7월 9일에 최용덕(崔用德)이 부대장으로 보직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군일지』에서는 『육군전사』를 인용하여 백인엽을 초대 부대장으로, 최용덕을 제2대 부대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48년 5월 5일은 항공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항공기지부대’가 “구성(formed)”된 날짜이다. 그리고 『통위부특명첩』에 따르면 백인엽 소령은 5월 14일부로 이 부대에 전속을 명령받았으며, 여기에 그가 부대장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이 항공소위로 임관하여 7명의 병사와 함께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 즉, 1948년 5월 14일은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항공소위들이 백인엽과 함께 통위부 예하의 항공 관련 부서에 배속된 날이었다. 요컨대 백인엽은 한국군 대표로서 부대편성표가 확정되기 전 앨러먼과 함께 정규 항공 부대의 창설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으로 지휘관계가 드러나는 명령은 6월 26일부로 최용덕을 조선경비대 항공처장 겸 통위부 항공총감으로, 7월 15일부로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한다는 내용의 통위부 특명이다. 이 중 6월 26일의 명령은 ‘항공기지부대’의 예속관계 변경에 기인했다. 통위부 수석고문관로버츠(William L. Roberts)장군은 한국군의 지휘체통이 조선경비대와 통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작전통제 기능은 통위부에, 작전통제 기능은 조선경비대에 집중시키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지부대’는 6월 23일부로 통위부 예하에서 조선경비대 예하로 예속 변경되었고, 최용덕은 조선경비대와 통위부 양쪽의 항공 관련 부서를 총괄하게 되었다. 7월 15일에 최용덕은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되었고, 백인엽은 제4여단으로 다시 전출되었다. 처음으로 ‘항공기지부대’의 지휘관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이날의 명령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육군전사』에서는 7월 27일에 개칭된 ‘육군항공기지부대’가 9월 13일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다고 설명하지만, 『공군발전약사』에서는 7월 27일에 개칭된 ‘항공기지사령부’가 12월 15일부로 ‘육군항공군사령부’로 개칭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의 통위부 편성표에서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예하에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7월 27일부터 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2월 10일부로 “항공기지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육본 일반명령』 제10호를 고려하면, 1948년 5월 5일에 편성된 ‘항공기지부대’는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설되었으며, 이 부대는 12월 10일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에 대한 대안적 서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52년 발간된 『육군전사』의 오류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공군발전약사』를 발간하면서 상당수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인 1962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사』를 살펴보면, 앞선 두 서사를 단순 조합함으로써 오히려 혼동을 가중했다. 그래서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공군발전약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군발전약사』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공군 창군 이전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을 재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군정은 조선경비대 최초의 항공 부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5일에 경기도 수색에 있던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통위부 예하로 ‘항공기지부대’를 편성하고 美 군사고문 앨러먼 중위를 보임시켰다. 그리고 5월 14일에 백인엽 소령이 보임되었고, 이날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은 소위로 임관하여 통위부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105명으로 구성된 부대 편제를 구성하고, 사병을 선발했다. 7월 15일에 최용덕이 초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7월 27일에 할당된 기지로 이동을 완료하면서 최초의 정규 항공 부대인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9월 13일에 미군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한 후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고 편제병력을 증강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인도 받은 L-4기 10대로 최초의 공식 비행을 시행했다. 『국군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부대는 12월 10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고, 12월 15일부로 육군의 항공병과를 총괄하는 기능 사령부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방부본부에서 독립한 항공국과 결합하여 ‘공군’이 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약 5개월 만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약 10개월 후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이 창군되기 전, 그 모체가 되었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은 단기간 내에 누적된 개칭(改稱)의 역사였다.

개칭(改稱)의 실제

국방경비대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이 일종의 개칭사(改稱史)였다면, 그 개칭의 실제는 어떠했을까?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그 부대의 병력은 장교 8명에 사병 62명에 불과했고, 항공기는 단 1대도 없었다. “사령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병력이 너무 적었다. 『장교임관순대장(공군)』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했던 12월 무렵에는 장교가 42명 남짓에 사병이 440여 명 정도였으며 항공기는 연락기 20여 대였다. 그리고 1년 후 공군이 창군되었을 때는 장교가 약 150명, 사병은 950명 정도였고, 항공기는 연락기 16대에 불과했다. 즉, 그 개칭은 주로 병력의 확대를 반영한 것이었을 뿐, 기술적 능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에 대하여 ‘Air Detachment’의 규모라는 항공력 원조의 기준을 6·25전쟁 발발 전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경비대 항공 부대의 개칭사는 그 성격의 변천보다는 각 항공 부대가 시기별로 희망했던 목표의 변천을 드러낸다. 미국에 항공기 원조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개칭의 목적이었다. 항공 부대의 인적 팽창과 그에 따른 개칭은 한국이 항공력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 한국은 항공 부대의 명칭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끝내 독립 공군을 창군하려 했지만, 미군은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래서 항공 부대의 개칭사만 보면 마치 갑각류가 껍질을 벗듯 진화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공군은 “양병조직 및 지휘참모조직의 과대(過大)함과 용병조직 및 전술제대의 과소(過小)함”이 특징인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 개칭의 역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선경비대 항공장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으며, 무엇을 지향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개칭을 통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독립된 군종으로서 공군을 창군하려 했다. 특히 항공 부대가 조선경비대의 한 병과로 창설되어 독립했다는 『육군전사』의 인식과 달리 공군에서 발간된 『공군발전약사』에서는 그 부대의 장교들이 처음부터 공군 창군을 목표로 결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광복 직후부터 시작된 공군 창군운동의 일환으로서 국방경비대 항공 부대의 변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은 1948년 7월 27일에 창설된 ‘항공기지사령부’의 성격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군발전약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공기지사령부’는 편제와 지휘관계, 그리고 독립된 기지를 갖춘 최초의 항공 부대였으며, 그 부대의 명칭에는 독립 공군을 창군하겠다는 항공장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사에서 ‘항공기지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

KF-21 보라매의 탄생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의 시험 비행(출처: wikipedia)

2001년 3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발표한다. 공군의 F-4, F-5 전투기 대체와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에 따라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21 장기신규 소요가 처음 결정되었다.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또는 보라매 사업으로 불린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15년 즈음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필요했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그 연구를 수행했다. 2009년에야 비로소 타당성을 인정받은 KF-21 사업은 2010년 1월 21일,

제6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탐색개발 착수가 승인되었고, 이후 4월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

KF-21 사업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부터 국제공동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6일에 한국-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가, 2010년 7월 15일에는 공동개발 협정서(MOU)가 체결되었고,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반영되었다. 2011년 6월 13일, 탐색개발실행계획서가 승인되면서 마침내 KF-21 개발이 시작되었다.

탐색·체계개발 / 양산

2012년, 탐색개발 결과 전통적인 방식의 윙테일 형상(C100 계열), 유럽 전투기들과 유사한 카나드윙 형상(C200 계열)이 검토되었다. 탐색개발 이후 2014년, KF-21의 작전운용성능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고, 2015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이 KAI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KF-21은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이 시작되었다.

체계개발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되는 블록-I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되는 블록-II로 구분된다.

2016년부터 기본설계를 거쳐 2018년에는 상세설계를 수행하였고, 2019년부터는 6대의 시제기 제작에 착수하여 2021년 4월 출고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지상시험을 시작하였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 최초 양산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관련 업체들과 최초 양산 우선 물량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6년 말 공군에 양산 1호기를 납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KF-21 총 120대를 양산하여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KF-21 출고식(출처: KAI)

형상 및 세대

공개된 기본설계 최종형상(C109) 기준으로 KF-21은 F-22, F-35 등 전형적인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즉,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5세대 전투기의 중요한 특징인 스텔스 성능을 기본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형상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지만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구분된다. 이는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진화적 개발을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의 KF-21은 4.5세대 수준의 성능을 갖지만 내부 무장창,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5세대 또는 5.5세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형적인 스텔스기 형상의 KF-21(출처: KAI)

센서 및 전자전

2016년 5월, 대한민국 공군이 진행한 F-35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美 정부와 록히드마틴사는 KF-21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4가지 핵심기술은 이후 제외된다. 이 4가지 핵심기술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포드(EO TGP), 전파(RF) 재머였다. 미국의 기술이전 제한으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자체개발이 시작되었다.

KF-21에 탑재되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는 KF-21의 눈에 해당한다. 안테나가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다수의 송수신소자를 배열하여 전자적

| 2012 (탐색개발 형상) | 2012~2015 (KAI 제안) | 2016~2017 (체계개발 형상) | | |
|--|---|--|--|---|
| | | | | |
| C103 | C104 | C105 | C106 | C10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아몬드형 날개 쌍발 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형 안테나 반영 내부 배치 구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노피 형상 개선 흡입구 성능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체 길이·폭 증가 날개 면적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동체 형상 개선 흡입구 형상 개선 |

KF-21 설계안 형상 변화(출처: 헤럴드 경제)

으로 빔을 주사한다.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부품이 없는 만큼 신뢰성과 여러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KF-21의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KF-21 보라매의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출처: wikipedia)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표적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로, 레이더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장비에서 전파를 방사하는 레이더와 달리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방사하는 전자기파가 없어 은밀한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레이더 전파 반사를 억제한 스텔스기도 상당량의 적외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스텔스기 탐지에도 효과적이다. 전자광학 표적 포드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대역의 센서를

사용하여 표적의 정밀한 영상 확보 및 추적이 가능하며, 레이저 조사 등을 통해 정밀유도무장 운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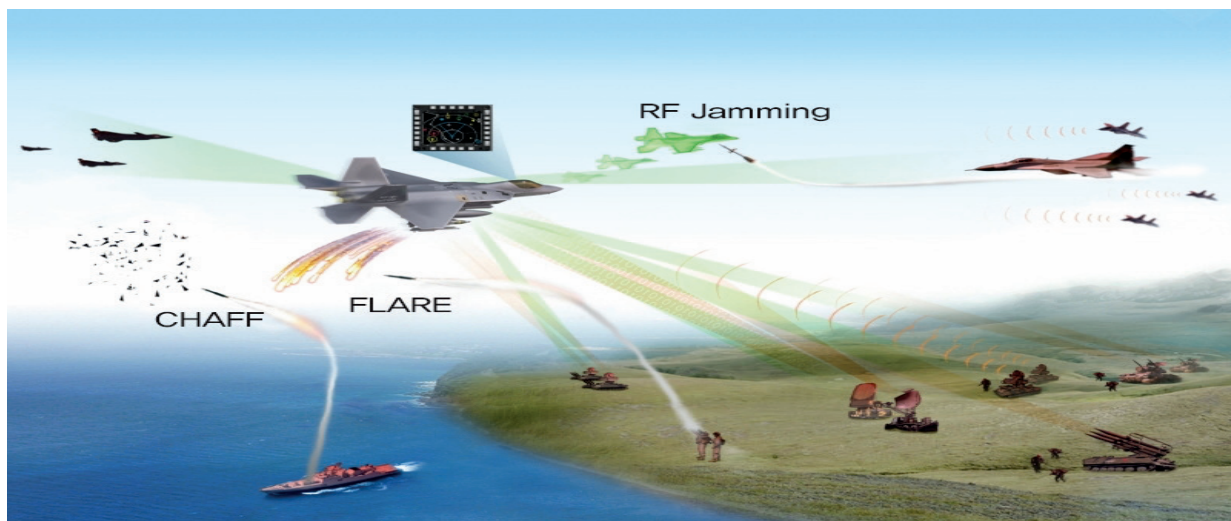
통합전자전체계는 과거 ALQ-200 전자전 포드를 개발한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된 전자전 장비가 KF-21에 통합된다. 이 체계는 레이더경보장치, 내장형 재머, 채프 플레어 발사기로 구성되며, 기존 장비들보다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무장

KF-21은 기본 무장으로 M61A2 20mm 기관포를 탑재한다. M61A2는 총신 6개가 회전하며 탄을 발사하는 개틀링 방식의 기총으로 F-22, F/A-18E/F 등의 최신 전투기들도 이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다.

KF-21은 약 17,000lb(7.7t)의 각종 공대공, 공대지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이들 무장은 주익 하단 6개, 동체 하단 4개의 무장 장착점에 탑재된다.

KF-21은 공대공 무장으로 미티어와 AIM-2000 미사일을 운용한다. 미티어는 마하 4의 속도에, 사거리가 무려 200km로 알려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미티어는 일반적인 미사일이 사용하는 단순 고체 로켓추진 방식 대신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하는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 공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유럽의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KF-21 외에도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등 유럽 전투기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KF-21 통합전자전체계 운용개념도(출처: LIG넥스원)

KF-21의 미래



미티어를 발사하고 있는 KF-21(출처: 방위사업청)


독일이 개발한 AIM-2000 미사일은 KF-21에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된다. IRIS-T로도 알려진 AIM-2000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과 유사한 무장이다.

이들 공대공 무장은 KF-21 블록-I에 통합된다. Mk.82, Mk.84, KGGB 등의 기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지 무장은 KF-21 블록-II에서 잔여 무장시험을 거쳐 통합될 예정이다.

향후 KF-21에는 기존 무장 외에 국내 연구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공대함 유도탄, 한국형 GBU 계열 무장 등 다양한 무장이 통합되어 임무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6세대 전투기와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KF-21 블록-I과 블록-II는 4.5세대에 해당하나, 진화적 개발에 따라 5세대, 5.5세대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이다. KF-21 체계개발 업체인 KAI는 KF-21이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념으로 KF-21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은 인공지능 파일럿 구현이다. 인공지능 파일럿은 자율 비행뿐만 아니라 전장 상황을 인식·판단하고, 교전까지 수행한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기관들은 KF-21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KF-21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내부 무장창, 스텔스 기술 등과 같은 하드웨어에도 여러 첨단 기술 적용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KF-21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하는 첫 전투기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플랫폼인 만큼 여러 신기술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주도하는 우수한 전투기로 발돋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기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출처: 2024년 2월 KAI 사보)



벨기에 이프러(Ypres) 격전지

사라예보의 총성! 세계전쟁에 불을 붙이다

벨기에 브뤼셀 전쟁박물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사라예보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독립주의자의 총탄에 살해당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는 한 달간 옥신각신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14년 7월 28일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되었다. 전쟁의 불꽃이 점화되자마자, 러시아·프랑스·영국은 세르비아 편으로, 독일·이탈리아·오스만튀르크는 오스트리아의 편에 섰다. 수십 년의 민족갈등, 과거 전쟁에 대한 복수심 등 그동안 쌓였던 참전국 간의 증오심이 일순간에 폭발했다. 7,000만 명의 군인들이 총검·기관총·독가스·전차·잠수함·비행기 등 모든 살상 수단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은 군인 940만 명, 민간인 1,900만 명이 희생되는 큰 상처를 남기고 끝났다.



벨기에 브뤼셀 군사박물관 전경



브뤼셀 군사박물관 1차 세계대전 전시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의 지정학적 위치

벨기에는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다. 두 강대국이 다투면中间的 벨기에가 가장 먼저 전쟁터로 변했다. 과거 우리의 국력이 미약했던 시절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여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했던 것과 비슷하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전쟁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립국 벨기에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와 비슷한 벨기에지만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등 숭한 전쟁유적지들이 벨기에에 남아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군이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불굴의 벨기에인들은 국왕



플랑드르 평원의 참호 전경

알베르(Albert) 1세의 지휘 아래 용맹하게 싸웠다. 왕 자신도 곳곳하게 최전선에서 장병들을 이끌었다. 수십만 벨기에 병사들이 이프러(Ypres) 주변의 플랑드르(Flanders) 평원에서 전사했다. 그중 수만 명은 처참한 독가스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플랑드르 벌판은 피로 얼룩진 진흙탕이 되었고, 역사가 깃든 도시 이프러는 폐허로 변했다.



벨기에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독가스 공격을 받는 벨기에군 모습' 삽화

참혹했던 플랑드르 평원의 참호전

이프러(Ypres)는 플랑드르 평원의 중심도시이다. 아직도 도시 주변에는 불발탄 등 전쟁의 잔해들이 남아있다. 전쟁이 끝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수류탄·버클·단검·두개골·물병·소총과 심지어 탱크까지 땅속에서 통째로 발굴되곤 한다. 북해의 수면보다 지세가 낮은 플랑드르 평원은 60cm만 파도 예외 없이 물이 솟는다. 전선의 참호 생활은 물과 진흙에 맞서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1917년, 이프러 전선의 영국군 참전용사 채프먼(Chapman)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참담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원시인으로 전락했다. 세수는 물론 면도도 못했다. 생리 현상은 가까이 있는 가장 깊은 포탄 구멍에서 되는데로 처리했다. 어쩌다가 금속제 양동이가 지급되기도 했다. 양동이가 가득 차

면 야간에 참호 밖으로 기어나가 내용물을 버리곤 하였다. 배설물처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사자 시신이었다. 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죽은 그곳에 바로 매장되었다. 새로운 참호를 파다 보면 십중팔구 문힌 채 썩어가는 시체가 발견되곤 했다. 이런 시신과 더불어 참호 여기저기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쥐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쥐들은 엄청나게 컸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부상병의 상처를 뜯어먹었다. 설상가상으로 쥐의 번식력은 매우 왕성하여 한 쌍의 쥐가 1년에 88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특히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체의 눈과 간이었다.”



이프러 격전지에서 발굴한 전쟁유물



참호 속의 연합군 장병 모습

비행선·항공기! 하늘의 전쟁, 시작되다

1914년 12월, 새롭게 전선에 나타난 비행선과 항공기는 공중전이 아닌 정찰이 주 임무였다. 조종사들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적기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다. 영국군 조종사 케네스(Kenneth)의 경험담이다. “독일군 항공기와 거의 붙다시피 했다. 우리는 서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권총 6발을 모두 쏘았고, 적도 총알이 떨어졌다. 우리는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하고 헤어졌다.” 1915년 이후 항공기 무장수준은 급격히 강화됐다. 1916년 말 독일군은 대규모 전투기부대를 창설했다. 항공기 18대로 구성된 33개의 전투비행대대가 전선에 배치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조직을 ‘공군(Luftstricikraft)’으로 명명했다. 영국·프랑스 등 연합군도 항공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1917년 5월 25일, 독일 폭격기 편대가 영국 런던을 폭격하고자 이륙했다. 하지만 기상 관계를 이유로 포크스틴(Folkestone) 항구로 목표를 변경했다. 5톤에 이르는 폭탄 세례에 95명의 시민이 죽고 195명이 다쳤다. 제1차 세계 대전 시 이미 스코틀랜드와 런던 부근은 독일군 비행선과 폭격기의 작전 범위 내 들어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인간의 탐욕이 마음껏 발산하는 전쟁터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영국공군 브리스틀 F2B 전투기



독일공군 고타 G4 폭격기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추모행사

매일 저녁 8시 이프러시 전역에는 요란한 소방서 사이렌이 울린다. 라스트 포스트(Last Post) 기념관이 있는 중심 거리의 모든 차량이 멈춘다. 이 사이렌은 제1차 세계대전 시 이프르 전선에서 숨진 25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 전몰장병 추모행사의 신호이다. 1928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축한 무명용사 기념관 앞에서 이 행사는 처음 시작되었다. “군목기도, 추모시 낭송, 1분간 묵념, 추모곡 연주, 벨기에 애국가 합창……”. 9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시민단체 주관의 전통의식이다. 1940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은 이프러를 점령하자마자 이 의식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이 추모행사는 영국의 브룩우드 병영(Brookwood Barracks)에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계속되었다. 1944년 9월, 이 도시를 연합군이 해방시키자마자 이 추모의식이 기념관 앞에서 재개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으로 인해 54,896명의 용사 명단이 적혀있는 라스트 포스트 기념관으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고 있으며 이곳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



이프러 라스트 포스트 기념관 전경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성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 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한 달, 한 권

나의 관점을 바꿔준 책,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김동원 작가

국방부 진중문고 『독서로 군 생활은 예술이 된다』의 저자. 군 생활 동안 약 170권의 책을 읽고 '관점'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장병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전 군부대를 다니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반이(적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많은 장병들의 군 생활을 돕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진중문고 『독서로 군 생활은 예술이 된다』의 저자 김동원입니다. 월간 『공군』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께 ‘군대에서 만난 책’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군 생활’과 ‘독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거중기’와 ‘녹로’를 발명하여 수원화성 축조에 크게 공헌하고, 경기도 암행어사로서 비리를 고발하는 등 나라를 위해 크고 작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유박해’로 인해 종교적 탄압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돈’, ‘명예’, ‘가족’ 등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몰락하다시피 했고, 심지어 자식들도 더 이상 과거 응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28살 입대 전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활동하던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입대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당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이 어긋나면서 군악대에 지원하지 못하고 ‘징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장갑차 조종수’라는 보직을 받아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하루만 연습하지 못해도 큰 타격을 받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연습할 수 없게 된 저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전공과 무관한 보직으로 입대하게 된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군대 때문에 제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독서’를 시작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시

작점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유배지를 벗어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더욱 매진해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책을 집필했죠.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야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정약용 선생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유배지처럼 느껴졌던 군대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자,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군대 안에는 ‘병 자기개발 지원금’, ‘국가기술 자격증’, ‘학점제도’, ‘공모전’ 등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도전 과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책을 읽으며 ‘독후감 공모전’을 비롯한 여러 공모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좋은 성과를 얻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국방일보에 기고문도 쓰고 전역 전까지 약 17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전역 후에는 『독서로 군 생활은 예술이 된다』라는 첫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4년에는 이 책이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되어 병영 도서관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현재 저는 대한민국 전 군부대를 다니며 장병들 앞에서 강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었던 일.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입대 초반의 저처럼 소망 없이 군 생활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역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장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군대에서 책을 통해 ‘관점’을 바꾸는 경험을 한다면, 남은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군 생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진중문고로 선정되었기에 병영 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저는 1년 동안, 입대 전까지 책과 무관했던 제가 어떻게 책을 읽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책을 통해 더욱 보람된 군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 | 민초문화연구소
박희부 편역 | 국방부
국방 | 민중 | 민중

세계 식문화 기행

비빔밥 이야기



손정희(우석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이자 ‘한국외식관광진흥원’ 상임이사 역임, 우석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외식관광뉴스』에 ‘손정희 교수의 세계 식문화 기행’ 칼럼을 연재했으며 다양한 방송활동을 포함해 메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부터 월간 『공군』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세계 식문화 기행’에서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이다.

예로부터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로 설날 그믐날 저녁에 먹는 우리 음식이 있다. 바로 궁궐에서 먹던 귀한 궁중 음식인 골동반(骨董飯)이다. 새해가 오기 전에 수랏간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을 없애고 새해를 잘 맞이하여야 했기에 궁중음식 골동반(骨董飯)에는 갖가지 나물은 물론 생선이나 고기로 만든 전인 전유어(煎油魚)와 약 고추장, 말린 다시마 부각까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다.

1800년대 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한글 조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한자 골동반(骨董飯)을 한글 ‘부빔밥’으로 표기하였고 이것은 현재의 ‘비빔밥’을 의미한다. ‘골동반’, 즉 ‘비빔밥’은 궁궐에서 먹던 귀한 음식으로 말 그대로 갖은 재료를 섞어 먹는 음식이다. 이렇듯 궁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이외에도 비빔밥은 제사 후 함께 나누어 먹던 음복 음식 유래설이나 격식 없이 한 그릇에 비벼 함께 나누어 먹던 농부들의 새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까지, 우리의 다양한 역사적 특성이 깃든 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비빔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해주 비빔밥이다. 한국 비빔밥의 대장격으로 알려진 전주 비빔밥은 사골 국물로 지어 윤기가 흐르는 구수한 밥에 아삭한


콩나물을 얹어낸 것이 특징으로 곡창지대인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과 지역특산물들을 비벼 먹던 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모든 비빔밥을 대표하는 격이 되었다.

경상남도의 진주 비빔밥은 제철에 나는 색색의 나물들과 해조류를 밥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그 위에 볶은 소고기를 꽃봉오리 장식으로 마무리한 형태를 가진다. 그 모습이 마치 꽃처럼 예쁘다하여 칠보화반(七寶花飯)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비빔밥이다. 진주 비빔밥에는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이 올라가며 전주 비빔밥이 콩나물국을 곁들여 낸다면 진주 비빔밥은 맑은 선지국 형태인 보탕국이 제공된다.

칠보화반(七寶花飯)이라는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진주 비빔밥의 기원에는 슬픈 역사가 담겨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일본군이 호남으로 통하는 거점인 진주성을 침입했다. 4,000여 명의 조선 관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3만여 명의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펼쳤고 진주성을 지켜낸다. 이 전투를 역사는 ‘진주대첩’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무려 10만에 가까운 일본군이 진주성을 다시 한번 침공한다. 일본군의 거센 공격에 결국 진주성은 함락된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진주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성안에 남아있던 소를 잡아 싱싱한 육회는 나물밥 위에 얹고 나머지 부산물로 선짓국을 끓여 곱평하게 나눠 먹은 것이 진주 비빔밥의 유래라고 한다.

해주 비빔밥은 ‘해주 교반’이라고도 불리며 황해도도의 진미로 알려져있다. 황해도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맨밥이 아니라 돼지비계 기름에 밥을 볶고 소금으로 간하고, 가늘게 찢은 닭고기와 익힌 콩나물을 다 른 나물과 함께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3종류의 비빔밥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이 즐겼다고 전해지며 방풍잎과 해산물로 맛을 낸 통영 비빔밥, 남해안 섬 일대에서 즐겨 먹은 남해 해초 비빔밥 등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형태로 비빔밥을 즐겼다.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을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어받은 비빔밥은 새로운 재료들과 함께 간편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비벼지며 각자의 맛이 따로 또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음식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의 화합과 소통, 어울림의 의미가 바로 이 ‘비빔밥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2025년 새해에는 ‘비빔밥 문화’처럼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건 강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출처: pixabay

소리로 보는 세상

오백 년을 이어온 소리,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공연_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다큐멘터리_국악방송



이윤주(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악고, 한양대, 영남대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다. 국악교육, 공연기획, 학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로 「세종의 소리 여민동락」을 직접 기획하였다. 평상시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관람객으로 일상의 피로함을 객석에서 치유한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사극에서 신하들이 하는 이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묘사직은 ‘국가’를 이르는 것으로 임금께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우니 강토를 지키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청을 상징적으로 고한 것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선대왕께 지내는 종묘제례와 땅과 곡식의 신께 지내는 사직제례는 국가의 중대사였다.

종묘와 사직단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 3가에 위치해있다. 종묘에는 재위 기간이 길고, 업적이 많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있는 정전과 재위 기간이 짧거나 후대에 왕으로 추존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있는 영녕전 두 개의 건축물이 있다. 정전은 19개의 방이 옆으로 길게 이어진 독특한 형태로 동서양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긴 목조 건축물로 꼽힌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 의식은 가정에서 하는 제사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왕이 직접 받드는 제사였던 만큼 최고의 규모로, 엄격한 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종묘 제례는 신을 맞이하는 영신으로 시작하여, 음식을 올리는 전폐와 진찬, 석 잔의 술을 올리는 초헌·아헌·종헌, 조상이 드신 음식을 내려받아 복을 받는 음복, 제상을 물리는 철변두, 조상의 혼백을 보내는 송신, 축문을 태워 제의를 마치는 망료로 진행된다.

이때 반드시 ‘악’이 함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가(歌), 무(舞), 악(樂)을 총칭한다.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보태평, 정대업으로 구성되며, 그 악보는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기록되어있다. 태평천하의 사회를 만들고 평화를 이어간다는 뜻의 보태평(保太平)은 문화정치의 기틀을 이룬 조종의 문덕(文德)을, 나라를 세우고 대업을 완수했다는 뜻의 정대업(定大業)은 자주국방 및 국태민안을 보전한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내용의 가

사이다. 세종은 선대왕들의 위업을 기리는 신악을 제례악으로 사용하고자 만들었으나 생전에는 궁중 잔치음악인 회례악으로 연주되었고, 이후 세조 대인 1464년에 이르러서야 제례악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무관을 기리는 정대업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적들의 침공에 분노한 병사 그 위업이 맹수 같도다.
드높은 사기는 하늘을 덮고 정의의 함성은 땅을 울린다.
파죽같은 공격 앞에 적들이 흠어들어지니
불패의 무공은 신의 뜻이라.

위대하신 우리 조상께서는 대대로 큰 무공을 세우셨으니
그 크신 공덕과 위업을 어찌 가히 형용하리오.
우리들의 춤에는 그 깊은 뜻을 담아 표현하였사오니
오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전통음악은 악기 배치와 장식, 색깔, 연주 순서 등이 음양오행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종묘제례악도 이에 따라 양을 상징하는 멧돌 위의 등가, 음을 의미하는 멧돌 아래 현가 두 개의 악대가 있다. 제례악기도 청색의 절구 형태로 된 ‘축’은 해가 뜨는 동쪽에 배치해 음악을 시작할 때 연주하고, 하얀 호랑이 모양의 ‘어’는 서쪽에 두고 음악을 마칠 때 사용한다.



축(출처 국립국악원)



어(출처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에서 줄을 지어 서서 춤을 추는 ‘일무’라 하는데, 일무는 제례의 대상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황제를 위한 제사에는 8명이 8줄로 64명이 춤을 추고, 제후에게 제를 올릴 때는 36명이 6일무를 춘다. 일무에는 문관을 상

징하는 문무와 무관을 상징하는 무무가 있는데 손에 드는 무구가 다르다. 문무는 도량형의 질서를 의미하는 ‘악’과 문필을 상징하는 꿩 털로 만든 ‘적’을, 무무는 ‘목검’과 ‘목창’을 들고 춤춘다. 무무는 역대 임금의 무공을 높이 표현한 춤으로 문무에 비해 절도와 힘이 느껴진다.



무무(출처 국립국악원)



무무(출처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은 국가무형유산(과거, 국가무형문화재 제 1호)으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고,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한 왕조의 제례 의식이 단절 없이 500년 이상 이어진 흔치 않은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공연 모습

조선시대 왕실의 음악기관 장악원의 악공들이 연주하고, 국립국악원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종묘제례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2015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파리 국립사이오극장의 시즌 개막작으로 초청받은 종묘제례악은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유럽인들의 극찬을 받았고, 2023년 독일 베를린 뮤직페스트 초청공연에서도 1,700명의 관객이 20분간 기립박수를 보내는 감동의 순간도 이루어졌다.

종묘대제는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봉행된다. 1년에 단 두 차례 정전에서 열리는 종묘제례악을 통해 500여 년 전 선조들의 정신을 엿보길 권해 본다. [☞](#)

서양 문화 비행

선사 시대의 예술, 기원과 주술적 의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동굴벽화



소나영(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

어린 시절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꿈을 잊고 지낼 무렵, 미술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2016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으로 '작가탐방' 코너에 매달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전시기획자와 미술비평가로도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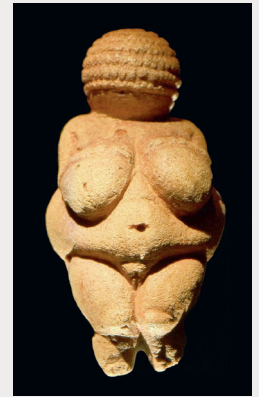
예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선사 시대부터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등을 지나 모더니즘 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앞으로 '서양 문화 비행' 코너에서는 시대별 주요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인류의 예술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미술사 책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동굴벽화일 것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왜 작은 여성 조각상을 들고 다녔으며, 위험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벽화를 남겼을까? 먼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n Willendorf)'를 보자. 1908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지역에서 발견된 이 여성 조각상은 2만 8천 년 전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손에 쥌 수 있는 크기로 풍만한 여성의 몸을 표현한 조각상이다. '비너스'라고 하면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8등신의 아름다운 여신이 떠오른다. 그렇기에 이 4등신으로 보이는 조각상에 붙은 비너스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에는 풍만한 여성 이미의 기준이었던 걸까? 놀랍게도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유사한 형태의 여성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재료는 석회암인데, 이 조각상이 발견된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지역 반경 200km 내에는 해당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2만 8천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것이고,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옮겨져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작은 여성 조각상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과 가설들이 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기이고 연구도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가설들 중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일 것이다. 흥미로운 가설 중의 하나는

임산부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조각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는 대지모신의 숭배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동굴벽화 역시 선사 시대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림이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역 몽티냐 마을의 ‘라스코 동굴벽화(약 1만 7,000년 전)’는 강아지를 찾으러 간 10대 소년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가장 유명한 황소의 방에 들어가면 엄청난 규모와 황소 두 마리가 마주하는 장면 그리고 붉은 사슴과 말 떼가 지나가는 역동적인 표현에 놀라게 된다.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고, 동굴 안이 어두워서 제대로 그리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사람들은 나무를 태워서 그리거나, 입으로 뿜어서 채색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동물들을 묘사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스페인 칸타브리아 지역에 위치한 ‘알타미라 동굴벽화(약 1만 4,000년 전)’는 1879년에 인류 최초로 발견한 동굴벽화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당시 사람들은 원시인이 그린 것이라




라스코 동굴벽화(황소의 방)(출처: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믿지 않을 만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면, 튀어나온 암석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피카소는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보고 “인류는 2만 년 동안 나아진 것이 없다”라며 이 벽화에 크게 감명받아 황소를 작품 소재로 많이 그렸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출처: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국립박물관)

프랑스 폰다르크 지역의 ‘쇼베 동굴벽화’는 1994년에 발견된 벽화로, 앞의 두 동굴벽화에 비해 조금 생소하지만 더 오래 전인 약 3만 2,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쇼베 동굴벽화에는 황소가 아니라 곰이 그려져 있는데 동굴 한 칸 제단 같은 공간에는 곰의 머리뼈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가, 반인반수의 주술사를 그려놓은 점을 보면 이 부족이 곰을 숭배한 것으로 추측된다. 벽화를 들여다보면, 마치 연속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것처럼 동물들의 몸을 여러 겹으로 중첩시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에 그려진 것이라 해도 믿을 법도 하다.

선사 시대에 제작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동굴벽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개념과 달랐다. 선사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자각이 있었을까? 그들은 대상을 아름답게 재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기원과 주술적·제의적 의미로 제작했을 것이다. 특별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 이를테면 주술사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것들은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이 되었다. 

생각하는 그림

초킹(Chocking) 극복하기

살아가며 몹시 긴장된 순간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해야 하는 순간,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순간 등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담담하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순간을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호흡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초킹(Chocking)’이라 표현합니다.



초킹은 ‘목메는 듯한’, ‘숨막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초킹현상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평소의 자신이라면 하지 않을 실수를 연발하는 극한의 긴장 현상을 말합니다. 위험과 긴장에 직면하면 우리의 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가 살아남기 위해 행하는 자연스러운 위기 극복 방식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심각한 ‘초킹’현상을 불러오기에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초킹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긴장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빈도와 극심함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초킹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긴장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되면 뇌가 공포감을 촉발해 순식간에 불안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권장되는 것이 5-7-9 호흡법입니다.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9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 상태에서 보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나만의 긴장 해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 전 눈을 감고 1분간 명상을 하는 것, 발표 전에 찬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자신만의 루틴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극한의 긴장을 유발하는 ‘초킹’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방법들을 활용해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긴장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처럼, ‘초킹’을 인정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공군인이 됩시다.**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책 읽는 공군

새해를 맞이하며

상병 김민철


“어릴 적 부모님 곁에서 책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독서가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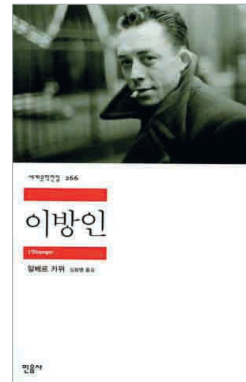
1월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꿈과 목표가 가슴에 피어나고, 새로운 의지와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계획을 한 해 내내 실천하고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쌓이는 피로와 조그만 실패의 경험에 의지는 점차 꺾여 나가고, 어느덧 연말이 오면 타성에 젖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문득 허무감이 고개를 듭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여기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품고 현재에 안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조리 철학’으로 유명한 작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 역시 생의 허무와 권태에 빠진 인물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죽음에조차 무감각한 그가 책의 첫머리에서 내뿜은 독백입니다. 그에게 삶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는 삶에 대해 특별한 욕망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무감각한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뫼르소는 점점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이방인’ 같다고 느낍니다.

뫼르소의 비정한 모습은 언뜻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돈과 명예를 얻어도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삶은 결국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꿈을 꾸고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뫼르소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돌아가신 어머니가 왜 양로원에서 생명이 다 사그라져 가는 그때 약혼자를 두었던 것인지 생각해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이라는 허무의 문턱에서 사랑을 통해 해방감과 구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꿈을 꾸고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처한 본질적 무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꿈 한두 가지가 마음속에 피어날지 모릅니다. ‘어차피 금방 포기할 텐데 굳이 시작해야 할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낼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실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
알베르 카뮈 지음 | 민영사 펴냄

마음의 소리

김진주

lovejinjoo**@gmail.com

우연히 공군 소식지를 알게 되어 구독 신청을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드디어 첫 월간 『공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소식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렇게 알찬 내용을 꾸리신다고 편집실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초음속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데 제8비행단 소식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초음속기가 소형 무인기를 잡지 못해 KA-1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내년에도 공군의 여러 소식 따뜻하게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필승!

AF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내용이 구독자분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25년에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겁게 『공군』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임

leechoon12**@naver.com

이번 호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식지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섭섭한 마음에 책장 하나하나를 소중히 넘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올 한 해도 월간 『공군』과 늘 함께한 덕분에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우리 공군의 빛나는 활약상을 생생히 엿볼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모쪼록 2025년에도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투영하는 기사들로 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소식지로 기억되길 응원합니다.

AF

월간 『공군』 편집실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2025년에도 힘을 내어 공군의 역사를 기록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군의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현

happyjsh01**@naver.com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공군』을 보며 파일럿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 독자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통해서 공군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2월호의 프리덤플래그 훈련 장면은 저에게 다시 한번 공군 최정예 파일럿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월간 『공군』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영공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군장병님들의 수고가 느껴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정예 공군의 모습을 매달 전해주시는 월간 『공군』 제작팀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F

공군 장병과 월간 『공군』 편집실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도 구독자분께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afzine@korea.kr 메일 또는 월간 홈페이지 독자 의견 창으로 제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매월 12일까지 / 공백 포함 1,20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9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ISSN 2383-5524
9 772383 552001 01 >